

MZ 무배당 기후위기 바로행동 보험



보험상품설명서

2024.03.30

미래생명

insta @climate.insurance

web theclimateinsurance.org

보험 소개 3

| | | |
|---|-------------------------------|----|
| 1 | MZ무배당 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을 소개합니다 | 4 |
| 2 | 상품요약서 | 10 |
| 3 | 가입 방법 | 16 |
| 4 | 약관 | 18 |
| | 〈보통약관〉 | 19 |
| | 〈특별약관〉 | 32 |
| 5 | 미래생명 보험설계사 활동하기 | 44 |

프로젝트 소개 47

| | | |
|---|----------|----|
| 1 | 기획의 말 | 50 |
| 2 | 왜 보험인가요? | 54 |
| | 참고 자료 | 58 |
| | 크레딧 | 60 |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우리를 만나세요
미래를 만나세요

보험소개

1

MZ

무배당

기후위기

바로행동

보험을

소개

합니다

매년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물가상승과 식량난,
생계 위협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해,
보험회사 〈미래생명〉에서
첫 번째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은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은
먼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의 기본을 추구합니다.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만든
최초 기후위기 보험,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입니다.

**Insuring
Our
Common
Future**

**함께
보장하는
공동의 미래**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래생명>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인 저희가 모이게 된
공통점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생활을 위협할때
우리를 지켜 줄 수 있는
보험이 없었거든요.

“평생 동안 보장이 잘 되는
기후위기 보험을 만들어 보자.”

저희의 바람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암보험처럼,

“평생 동안 보장이 잘 되는

기후위기 보험을 만들어 보자.”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험료,
그리고 보장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 문제가 발생하듯
경제 체제에 혼란이 온다면,
보험 가입 후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재화의 가치도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돈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험료,
그리고 보장 내용을 상상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시간'일 수도,
'정치적 행동'일 수도,
'함께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생명과 함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2

상품
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 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특히 아래의 조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인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적극 가입을 권고드립니다.

특별 가입 권고 대상

1.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
2. 기후위기를 헛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사실일까봐 걱정하는 사람
3.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4.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5.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6.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알기 어려운 사람
7. MZ세대가 아니라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8. 내가 속한 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9. 내 다음 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
10. 환경을 위해 스스로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사람
11. 혼자 노력한다고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2.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13. 최악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다 함께 고통없이 공평하게 죽는다고 상상하는 사람
14. 환경문제 이야기는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5.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6.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17. 기후위기에 관심은 생겼지만 이미 너무 탄소집약적 라이프스타일에 적응되어 어떻게 바꿀수 있는지 막막한 사람
18. 환경운동가들을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9. 활동가와 활동가가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
20. 기후위기에 관심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21.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를 향한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22. 환경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까봐 두려운 사람
23. 실천은 하고 싶은데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까봐 망설여지는 사람
24. 개인의 힘을 믿고 실천하고 있지만 주변의 냉소적 반응에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
25.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사람
26. 아직 바꿀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27. 인류의 다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28. 기업, 정치, 체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29. 기업,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개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0. 개인 인식의 전환이 가장 급진적이고 빠른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상품의 가입과 동시에 보험설계사로 임명됩니다. 보험설계사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가입을 권유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자신의 라이프스타일별 예상되는 손해에 관한 다양한 보장 특약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하는 손해의 종류

동 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택구분 | 보장하는 손해별 약관 |
|------|-------------------------|
| 기본계약 |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 보통약관 |
| 선택계약 | 식생활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기후위기 취약 거주지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기후위기 취약 업종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에너지 위기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기후재난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건강 위기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성·재생산 권리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반려 동·식물 특별약관 |

| | |
|------|--------------|
| 선택계약 | 취항 및 여가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민주주의 특별약관 |
| 선택계약 | 폐허 특별약관 |

나. 기본보장 손해 항목

기본계약은 아래의 의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2.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공동체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3. 탄소집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4. 기후위기를 극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 ** 선택계약별 보장 항목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자세한 내용은 약관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공적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만 끝어다 쓰는 행위를 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의식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3. 피보험자가 탄소배출이 큰 라이프스타일을 과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피보험자가 기후 위기에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여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이윤을 얻으려한 경우
5. 피보험자가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미래를 비관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만을 일삼는 경우 및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두려움만을 증폭시키는 경우

마. 보장내용

1. 피보험자의 미래, 피보험자가 속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미래
2.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리스크에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현재
3. 함께 행동하는 연결된 시민들(커먼 피플)과의 네트워크

3

가입 방법

아래 QR 코드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가입하세요!

(명시된 특약 외에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특약을 한 가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theclimateinsurance.org/>

4

약관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미래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3. **설계사** 미래생명 보험 설계사 LC(life consultant)로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함께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월 가입자 실적 기준 미달에 따른 불이익이나 갱신과정은 없으며, 평생 설계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 가능합니다.
4.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부족, 식량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2항 준용)
5. **보험료** 기후위기를 막고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양식을 말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말합니다.

6. 커먼피플(Common People)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보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의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 가. SNS에 기후위기 이야기만 줄창 올려서 구독자 수가 줄어든 경우
 - 나. 기후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영업장을 닫고 매출이 줄어든 경우
 - 다. 기후위기 재난 현장의 복구를 돕는 구호활동을 운영하거나 재난 현장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생한 손해
2.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공동체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 가.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과의 연결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 나. 기후재난 생존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3. 탄소집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손해
 - 가. 유기농 채식 위주 식단으로 변경하며 식비가 상승한 경우
 - 나. 도시 텃밭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름이 깊어진 경우
 - 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 도로 미비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 라.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한 후 급가속·급제동·화재 사고가 난 경우

- 다. 친환경 브랜드 광고를 하는
인플루언서임에도 옷을 과다하게
구매하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행위
- 4. 피보험자가 기후위기에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여 사기를 치거나 부당한 이윤을
얻으려한 경우
- 5. 피보험자가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미래를
비관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발언만을 일삼는 경우 및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두려움만을
증폭시키는 경우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1. 기후위기로 인해 피보험자의 일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손해 사실을
직접 알리기 어려운 상황일 때, 서로 돌보는
커먼피플은 네트워크 내의 동료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대신 알릴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1, 2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장 내용)

1. 보험료 납부율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보장 규모가 커집니다.
2. 보장 내용
 - 가. 피보험자의 미래, 피보험자가 속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미래
 - 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리스크에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현재
 - 다. 함께 행동하는 연결된 시민들(커먼
피플)과의 네트워크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제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아래 내용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상담사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귀사의 보험상담사는 진솔한 상담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 완구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5항을 제외하고 알린 사실들로 인한 불이익, 또는 가입 거부는 일절 없습니다. 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에 필요한 최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지한 순간 및 그때 느꼈던 감정
2. 최근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떠올린 순간
3. 기후위기로 인해 10년 내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시” 걱정되는 상황, 혹은 이와 같이 정제되고 수치화된 “과학적 설명”을 접할 때의 감정.
4.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5. 회사가 지정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체*에서 경영·이사진 이상 직책이거나, 해당 기업체에 대한 지분율 1% 혹은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지 여부
6. 현재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 예시) 바다 근처에 살고 있다. / 농업, 어업에 종사한다. / 야외 노동을 해야 한다. / 단열이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 / 세입자이다. /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 2018년~2021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 1위 포스코, 2위부터 6위까지는 한국전력 자회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7위 현대제철, 8위 삼성전자(2018년도 11위), 9위 쌍용씨앤이(구, 쌍용양회), 10위 S-Oil(2018년도 12위)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3315>)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8조(보험료 납부 방식)

계약자가 월 1회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할 경우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실천하는 만큼 납입되는 보험료가 커집니다.

1. 에너지 사용
 - 가.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방식
성찰하기(예: 탄소 배출 가계부 쓰기)
 - 나.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
되기(예: 태양광 패널 설치하기,
에너지협동조합 가입하기, 재생에너지
펀드에 가입하기)
 - 다.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하기
 - 라. 샤워 시간 줄이기
 - 마. 실내 난방 온도 2도 낮추기
 - 바. 가전제품 사용량 줄이기(예: 건조기
사용 줄이기)
 - 사.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공부하기
 - 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력회사
설립에 참여하기
 - 자. 노동시간 줄이기(에너지 사용량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임금노동 시간
줄이고, 나와 지구를 돌보는 시간
늘리기)
2. 자원 순환
 - 가. 물티슈 대신 손수건 챙기기
 - 나. 고쳐 쓸 수 있는 물건 고쳐쓰기. 고쳐쓸
수 있는 좋은 품질의 물건 오래 쓰기
 - 다. 배달음식 덜 먹기

- 라. 택배 주문 대신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기
- 마. 동네의 제로웨이스트샵 이용하기
- 바. 새 물건 사기 전에 중고 매물부터 확인하기
- 사. 동네에 공유할 수 있는 기후 쉼터 혹은 유희 공간 마련하기
- 아. 재이용과 재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 배출 철저히 하기
- 자. 기후친화적 옷 입기(예: 패스트패션 대신 빈티지 의류 구입하기. 새 옷은 적게 사서 오래 입기. 적극적으로 수선해서 입기)

3. 식생활

- 가. 도시 텃밭이나 실내에서 친환경 농사 짓기(파테크 포함)
- 나. 토종 씨앗에 관심 갖기
- 다. 채식 위주 식단으로 식사하기
- 라. 기후위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 된 커피 줄이기. 기후위기 때문에 커피 줄인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기
- 마. 동물성 유제품을 식물성으로 대체하기
- 바. 초콜릿과 수입 맥주 섭취 줄이기
- 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아. 반경 5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철 농산물 구입하기
- 자. 저탄소 식단으로 식사하기(예: 메탄가스 발생량 고려하기. 반추류(소,양) ☞ 돼지 ☞ 가금류(닭, 오리) ☞ 어패류 ☞ 식물성, 온종일 국물을 우려내어 끓이는 설렁탕 ☞ 잔치국수)
- 차. 식품사에 채식 식품 개발 요구하기
- 카. 생산지에서 비행기로 보내는 항공 직송 식품 먹지 않기
- 타. 기후위기 심화시키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알아보기

파.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농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관심 갖기. 농가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농가에서 보내주는 제철농산물꾸러미 구독하여 아는 농민 늘리기(언니네텃밭, 마르쉐농부시장 등 참고)

하. 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되어 농산물 구입하기 (두레생협, 한살림, 아이쿱 등 참고)

4. 돌봄

가. <돌봄선언> 읽어보며 기후위기 시대에 서로 돌보는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나. 치열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 만들고 탄소배출 없는 활동하며 놀기 (예: 명상, 자연 속에 있기,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에 빠져들기, 꽃 냄새 맡기, 채집, 예술, 걷기, 자전거 타기, 정원 가꾸기, 어쿠스틱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기, 노래하기, 춤추기)

다.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상호부조 모임 (예: 공동체 은행, 공동 주거 등)에 참여하거나 새로 조직하기

라. 다른 세대와 교류하기

마. 다양한 공동육아 공동체 및 돌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비혼, 무자녀 1인 가구이더라도)

바. 기후 우울로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 연락하기

사. 전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공적돌봄망을 구축하라고 정부 및 지자체에 요구하기

아. 자연과 생명을 착취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해 자신 및 타인을

돌보는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요구하기

자. 서로에게 더 다정해지기

5. 이동

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거나 걷기

나. 노후경유차 대신 전기차 이용하기

다. 차 소유하지 않고 공유 차 서비스 이용하기

라. 통근 거리 줄이기

마. 대중교통 이용하기

바. 재택근무 늘리기

사. 주4일만 근무하기

아. 비행기 타는 여행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자. 가까운 곳에서 레저활동 즐기기

차. 차에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지 않기

카. 걷기 좋은 도시(보행자 친화 도시) 조성 촉구하기

6. 정치적 행동

가. 기후 유권자 되기(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공약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당선 이후 공약을 지키는지 꾸준히 감시하기.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거나 탄소 배출을 늘리는 방향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선출되면, 생각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요구하기,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기후 정책 제안하기)

나. 기후 정치인 되어 내가 직접 선거에 출마해서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정책 제안하기

다. 기후위기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 기획하거나 참여하기.

라. 부정의하고 탄소집약적인 전쟁 중단 및 군사비 감축 촉구하기 (예: 1인 시위, 캠페인 기획하기, SNS에 알리기, 관련

- 단체 후원하기 등)
- 마.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응할 공공의료 확충 요구하기 (예: 1인 시위, 캠페인 기획하기, SNS에 알리기, 관련 단체 후원하기 등)
- 바.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튼튼한 공공주택 확충 요구하기 (예: 1인 시위, 캠페인 기획하기, SNS에 알리기, 관련 단체 후원하기 등)
- 사.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거나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업의 변화 요구하기(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에 투자하는 금융 기관과 금융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기)
- 아. 노동시간 줄이고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급 촉구하기
- 자. 기후대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때,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기 (예: 민원 넣기, 1인 시위, 캠페인 기획하기, SNS에 알리기 등)
-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여성,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을 고려하여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 기후재난 피해자·생존자·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 기후대응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 중앙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구체적인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 차. 사람들과 기후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하기

- 카. 과대 포장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알리기
- 타.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나
연구소, 정당 후원하기
- 파. 미래생명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가입자 수를 전폭 늘리기

7. 인식 전환

- 가. 기후위기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예: 책
〈파란하늘 빨간지구〉세미나 열기,
다큐멘터리 〈아이 엠 그레타〉 공동체
상영회 열기)
- 나. 일기 쓰거나 회고할 때,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질문 포함하기
- 다. 주변에 존재하는 다종의 생명체에
관심 갖기(예: 도시의 새나 길고양이
살펴보기)
- 라. 기후위기 검색해서 신문 기사 읽기.
좋은 기사 공유하기
- 마. 경제성장 제일주의 신화와 거리두기
(예: 〈적을수록 풍요롭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등 탈성장과 생태경제학을
말하는 책 읽어보기)
- 바. 편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 돌아보기 (예:
번거로워야 재미있는 일들 떠올리기)
- 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존재들이 없을지 고민하기
- 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유별난 사람으로
보인다고 낙담하지 않기. 비슷한
사람들(커먼 피플)을 찾아보기.
- 자. ‘저탄소 라이프스타일’ ‘1.5도
라이프스타일’ ‘탄소발자국 줄이는
방법’ ‘적정기술’ 검색하고 새로
알게된 것, 실천해보고 싶은 것 SNS에
공유하기

- 차. 기후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자료나 콘텐츠 만들고 공유하기
- 카. 나의 일상이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기
- 타. 활동가와 활동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않기.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동가라고 생각하기
- 파. 단번에 모든 실천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책하지 않기
- 하. 지금 여기, 나로부터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기

제9조(실천을 통한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텔레파시로 알려드립니다.
 - 가.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

제1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가입자들의 실천을 통한 보험료 납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회사의 파산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식생활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 부족 및 좋아하는 식재료 수급 중단, 제철 음식 및 지역 특산물 개념 폐기 혹은 기후위기로 영향 받은 식생활과 밀접한 문화 소멸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투병 중에 필수적인 특정 식이요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손해
2. 채소 작황 악화 및 채소값 폭등으로 채식 식단이 부실해져 발생한 손해
3. 과수원 및 채소밭 서리 증가로 발생한 손해
4. 아프리카의 기후재난 심화로 커피 원두 수급이 중단되어 업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5. 억지로 입맛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
6. 영업가능한 식당이 없는 경우, 요리를 못하거나 적당한 조리 시설에 접근하기 불가능한 경우 발생한 손해
7.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배추 및 고추 수급 중단으로 김장이 불가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손해
2. 전통적인 제사 음식 수급 난항으로 조상님들의 얼을 달래드리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주류 섭취 제한으로 인해 금단증상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4. 항공 직송으로 수급되던 식품을 먹지 못해 발생한 손해

기후위기 취약 거주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 재난으로 아래와 같은 거주지에 발생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혹은 타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폭우나 산사태에 취약한 비탈 아래에 거주하는 경우
 2. 해수면 상승으로 1년 내 침수가 확실시된 저지대에 거주하는 경우
 3.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
2. 공공주택에 발생한 손해
3. 침수된 기존 거주 지역에 수상가옥을 건축하여 발생한 손해

기후위기 취약 업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업종 종사자의 실직 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결정으로 타업종으로의 강제 이직, 극단적 날씨로 인해 통근 및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식자재비 상승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경우
2. 높은 기온으로 철도가 녹아 철도 운행이 어려워진 경우
3. 예측이 불가능한 극단적 기후 및 급증한 병충해 피해로 농사 짓기 어려워진 경우
4. 수온 상승 및 폭우로 인한 민물 유입으로 염분 농도가 떨어져 어업생산량 및 양식업이 어려워진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계절 축제 폐지로 인한 중소 기획사 및 하청업체 도산 위험이 커진 경우
6.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경우
7.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8. 전기차 생산 증가로 기존 내연 기관 조립 라인 및 부품 생산이 중단된 경우
9. 급속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주력 산업이 사라지며 피해를 입게된 지역의 노동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10. 냉방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폭염시에도 추가 완화 조치 없는 노동이 강제되는 경우
 11. 폭우 및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12. 폭염시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도 온열질환 및 보호장구 착용이 어려워 위험에 노출되는 라이더의 경우
 13. 소방, 경찰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 노동자가 업무 중 극한 기후 날씨에 빈번히 노출되는 경우
 14.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에너지집약적인 가상화폐 채굴 및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
2. 영향 받는 업종에 타인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는 경우
3. 영향 받는 업종이 이윤추구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던 경우
(예: 상업 포경선, 쌍끌이 대형 저인망으로 상징되는 산업형 어업, 다량의 비료 및 살충제·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에너지 위기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삶의 질 저하와 위험, 범죄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폭염시 에너지 수요 급증 결과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손해
 2. 냉난방 비용 상승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없어 발생한 건강상의 손해
 3.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에너지를 독점하려다 발생한 손해
2.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한 손해
3.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로 에너지 생산 및 관리에 실패하여 발생한 손해

기후재난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 강도의 태풍, 집중호우, 강풍, 홍수, 해일, 범람, 수해, 가뭄, 폭염, 산불로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극단적 기후 상황으로 임종, 결혼식, 면접, 회의 등 중요한 자리에 제때 도착하지 못한 경우
 - 나. 식수, 생활용수 부족으로 일상 생활에 생긴 손해
 - 다. 기후재난으로 생명을 잃거나 이에

- 가까운 사고를 당하여 생긴 손해
- 라. 극심한 집중 강우로 인해 수인성 매개 감염병이 발병하여 생긴 손해
 - 마. 장기간 지속되는 열대야로 적정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바.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 2.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시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기후재난과 상관 없이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더위로 인한 불쾌감 증가로 타인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건강 위기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피보험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성 질병으로 발생한 손해
- 2. 극단적인 더위 및 추위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혹은 심뇌혈관질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신장 및 비뇨기 질환, 정신건강, 이외 기저질환 악화로 발생한 손해

3. 미래에 대한 걱정 혹은 자연과의 연결감 단절로 인한 우울 및 공황 증가로 발생한 손해
 4. 야외활동 제약 증가로 인한 근육량 감소로 발생한 손해
 5. 기후변화가 초래한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발생한 손해
 6.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함으로써 얻게 된 트라우마로 인한 손해
 7. 대한민국 영해에 새롭게 서식하게 된 유독성 열대 생물(유독성 문어, 바다뱀 등)에게 습격 당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8. 유해 곤충의 습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
 9.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가로 인한 손해
 10.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평생 혈당 스파이크를 초래하는 가속노화 식단으로만 식사하여 생긴 손해
2. 기후재난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해 생긴 손해
3. 국가의 방역 정책 혹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손해
4. 고의로 벌집을 건들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생태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한 결과 보복당해 발생한 손해

성·재생산 권리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발생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으나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자녀가 걱정되어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기후변화가 초래한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에 발생한 손해
 3. 극단적인 기후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발생 혹은 그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결과 발생한 손해
 4.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성 건강, 재생산 관련 교육과 정보 및 의료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결과 발생한 손해
 5.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제1조 1항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이 늘어난 결과 출생률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국가의 소멸이 우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반려 동·식물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 재난으로 인하여 반려동·식물의 삶에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극단적 기후 지속으로 야외 산책이 필수적인 반려동물임에도 외출할 수 없는 경우
 2. 장기간 장마 지속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반려식물이 병들거나 사망한 경우
 3. 식량난으로 반려동물 사료 수급이 막힌 경우
 4.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동물학대와 같이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의 결과 인간에게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손해

취향 및 여가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 속에서 개인의 취향 및 고유성을 함양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해 계절이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
2. 극단적 기후가 빈번하여 야외에서 영화 촬영이 불가능한 결과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오프라인 여가 선택지가 줄어들어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져 발생한 손해
4.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 운영이

- 어려워진 결과 양질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
5. 여행을 줄인 결과 이질적인 문화와의 직접적 교류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6. 극단적 기후 발생으로 공연, 운동 경기 등이 빈번하게 취소됨으로써 덕질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
 7.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탄소집약적인 활동 혹은 산업에 기반을 둔 취향을 가짐으로써 생긴 손해

민주주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로 인해 민주주의 시스템 및 문화가 망가져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사.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 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던 공동체성이 붕괴하고 빈민, 성적 소수자, 장애가 있는 사람, HIV 감염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난민, 성폭력 피해자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할 사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및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아. 극단적인 기후 및 이로 인한 전염병 발생시 다중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자. 기후재난 상황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으로써 발생한 손해
 - 차.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비폭력·불복종 직접행동을 시도했으나 폭력적으로 탄압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카.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전혀 대응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투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2. '기후시민'으로서 자각이 부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기후시민이란,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말함)

폐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으로 인해 사랑했던 장소, 유적 및 문화가 폐허로 변할 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아름다운 제주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온대 산호가 절멸한 경우
 2.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인근의 유서깊은 사찰 등 문화유산이 전소한 경우
 3. 기타 손해 직접 작성 (심사 후 보장 여부 판단하여 반영)
-
-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산지, 습지, 농지 등 공공의 토지를 전용하여 골프장, 별장 등 사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발생한 손해

5

미래생명 보험설계사 활동하기

- 보험가입과 동시에 미래생명LC(life consultant), 즉 보험 설계사가 됩니다.
-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자료와 온라인 가입 링크를 공유한 후, 이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스스로 충분히 가입 및 설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시간과 분위기가 적당하다면 차 한잔 두고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를 돕습니다.

미래생명 LC의 지침

1. 설계사도 완벽하지 않은 보통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2. 약관북을 주기적으로 읽어보며, 설계사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3. 피보험자의 원활한 가입과 상품의 풍부한 설명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4. 고객에게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려고 노력할 때 모두가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부드럽게 설득합니다.
5. 우리의 목표는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다수의 가입자가 적게라도 보험료를 내고 설계사로도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6. 실적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실적에 따라 내가 받는 보장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7. 가능한 긍정적인 어조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전! 보험설계 하기

1단계 특별가입대상자인지 체크하기

선택한 항목들의 이유와 생각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함께 대화합니다.

2단계 보통약관 함께 읽기

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와 보장하지 않는 손해 확인합니다.

3단계 특별 약관 설계하기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미처 상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묻고, 특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개인에 맞는 항목을 추가 작성하도록 도와줍니다.

4단계 월 납부 보험료 산정하기

이미 실천하고 있어서 쉽게 납부 가능한 보험료 항목이 있을 시 먼저 체크하고, 잘 하고 있다고 꼭 칭찬해줍니다. 그 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추어 보다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안합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대화합니다.

프로젝트 소개

“그래서 그 그룹은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비전을 공유할
방법을 모색했다.

책임감 있는 농부가 생산력 있는
논밭을 돌보듯이 자연자원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살필 수
있는 사회,

인류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도 함께 보호해줄 사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맞서며
경쟁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서로를
존경하고 함께 일하도록 격려하는
제도나 조직을 만드는 사회,

그것이 핵이든 화학제품이든 간에 통제되지 않는 위험요소들이 생명에 얼마나 심각한 공포를 주는지 충분히 알아주는 사회에 관한 비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요약하자면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 뿌리 뽑히고 착취당한 사람들이 자기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어니스트 칼렌바크, 『에코토피아 비전』

1

기획의 말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이내로 (바람직하게는 1.5°C에 가깝게)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1.5도라는 숫자는 상징적 기준으로서, 기준점 이후부터는 지구의 기후조건이 현재의 인류 문명이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급변할 수 있음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단계적 혹은 비선형적으로 겪으며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특히 기후재난은 불평등하게 작용해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가난한 국가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예상했던 1.5도 돌파시점이 2030년에서 6년 앞으로 당겨졌다는 과학계의 보고도 발표되었어요.

큰일이 난 것 같은데
다들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과 기후위기에 대해
대화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뭔가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반응은 '이미 늦지 않았을까',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을까' 와 같은
무력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면, 당장 내 일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에게 닥칠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부터
찾아가 보려는 마음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2

왜 보험인가요?

당장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보험 광고들에서

'80세, 100세 보장' 이라는

광고 문구를 자주 발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장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험 시스템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도록 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존 보험이 흔히 보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암, 치매나 임플란트 외에 어떤

것에 대비해야 할까요?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오르면

당장 닥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행동하기 시작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희는 이 요소들을 보험이라는
컨셉에 적용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이라는

가상의 보험회사와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이라는
가상의 보험상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한 기후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실천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기후행동에 따른

손해를 보상 받는다는 설정이

적절한지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개별적인 행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함께 보장하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에도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행동하기 시작하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각자의 관심사, 성격, 잘하는 것이나
처한 조건은 모두 다를테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실천이 존재한다는 것도요.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함께 행동해봐요.

함께 보장하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자료

그레타 툰베리(이순희 역), 〈기후책〉, 김영사, 20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주 구체적인 위협-
유네스코가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달라진
일상〉, 동아시아, 2022
이유진, 〈전환도시〉, 한울아카데미, 2013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동아시아,
2019
폴 호컨(이현수 역), 〈플랜 드로다운 - 기후변화를
되돌릴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계획〉,
글항아리 사이언스, 2019

Michael Lettenmeier (Aalto University), Lewis
Akenji (IGES), Ryu Koide (IGES), Aryanie
Amellina (IGES), Viivi Toivio (D-mat Ltd.)
“1.5-degree lifestyles: Targets and options
for reducing lifestyle carbon footprints”,
SITRA, 2019

녹색전환연구소, 〈2024 기후전망과 전략〉 포럼
여성환경연대 등 “2023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
한겨레, “지구 온도, 이제 0.3도 남았대~” 오늘부터
친구한테 퍼뜨리세요, 2021-12-29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

강경민(더커먼 대표/ 프로젝트 대장, 기획
및 전시 담당) @take_my_apple
@common.for.green

김주온(BIYN 활동가/ 기획 및 원고 담당) @kim.juon

김하경(더커먼 크루/ 지원사업 행정)

신인아(오늘의풍경/ 기획 및 디자인 담당)
@sceneryoftoday

워크숍에 참여해 의견을 더해 준 분들

강은빈, 김소라, 남어진, 노건우, 이숲, 이혜란,
지현탁, 채아람, 최혜영, 한진희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주신 분

김다홍, 이명은, 그리고 익명의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관북 텍스트 감수

노건우, 백희원, 숲과나눔

자원봉사자

강하미 / 전시장 스태프

김태희 / 전시장 스태프

Stefan Ernst / 온라인 페이지 개발

전시 클로징 퍼포먼스

이랑

사진 촬영

임효진

영상 촬영

이다웍스 기부

전시 장소 대관

다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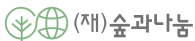
주관

THE COMMON CREW

지원

숲과나눔, 사랑의열매

이 약관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2023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THE COMMON CREW

이 약관북은 FSC인증 종이 및 인쇄 제작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보장하는 32공동의 미래로!